

스페인, 지속가능한 도시 위한 '건축품질법' 승인

<https://www.archdaily.com/976267/the-spanish-government-approves-the-law-on-quality-in-architecture>
<https://www.mitma.gob.es/el-ministerio/sala-de-prensa/noticias/mar-18012022-1541>

지난 1월 18일, 스페인 각료 위원회는 건축의 품질을 보호하고 장려하기 위해 스페인 의회에 제출할 '건축품질법(Architecture Quality Law)'의 초안을 승인하고 의회 절차를 개시하였다.

법안은 스페인 정부 부처인 The Ministry of Transport, Mobility and Urban Agenda(MITMA)의 주도 아래 현대사회의 사회적·환경적 문제에 대한 인식과 건축유산 등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들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통한 건축의 국내외 보급, 스페인 기업 및 전문가 지원, 품질 인정 인센티브 도입,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촉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건축 품질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안내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기본 기구인 'House of Architecture'와 'Architecture Quality Council'을 창설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건축 관련 학문을 보급하고 문화·외교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등 건축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도록 하며, 제도 개선과 자문 응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플랫폼으로서 구성될 예정이다. 법안은 New European Bauhaus,* Renovation Wave,** 다보스 선언 등 유럽 내 주요 규제를 고려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포함하며 에너지 효율성, 재생에너지, 에너지 빈곤 퇴출 등 에너지 효율성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건축물 복구 및 개선 등을 촉진하고자 스페인 정부가 승인한 The Recovery, Transformation and Resilience Plan(PRTR)의 구성 요소 중 일부를 함께 다룬다.

- * 건물에 위치한 지역 내 문화, 전통, 미적 기준을 충족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콘셉트
- ** 2020년 10월 건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효율을 높이기 위한 유럽 리모델링 전략



©Shutterstock